

# 조선불교사 연구 질·양 아직 부족

## 30년동안 논문 27편 단행본 30여권 뿐 정치사적 접근탈피 다양성 갖춰야

최근 들어 왕조의 억불정책으로 왜곡되고 소외되어 왔던 조선불교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학계 곳곳에서 나오면서 조선불교 연구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조선불교에 대한 연구는 삼국 고려후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등한시되어온 경향이 있다. 고승 비문만 해도 고려시대까지는 관련 자료나 연구서가 많지만 조선시대의 것들은 비문총합조차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조선불교 연구의 지지부진함은 자료의 부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연구자들의 관심 부족이 더 큰 이유라는 것이 학계의 설명이다.

70년부터 98년까지 조선불교 관련 석·박사학위논문은 27편, 단행본은 30여권 남짓에 불과하다. 한국불교사 관련 학위논문이 모두 172편에 달하고 단행본이 160여권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양이다. 특히 단행본의 경우 원효 의상 원측 의천 지눌 사명 보우 한운 백운 등 고승의 사상이나 전기를 다룬 것이 전체 간행물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경향은 삼국시대와 조선시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어서

다양한 주제선정 및 안목의 부족이 드러나고 있다. 고려의 경우 단행본은 조선시대에 비해 적으나 초·중·후기 고려불교사 논문집이 여러 권 있고 대장경 관련 저서와 정권과의 관계를 고찰한 것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조선불교사는 이제 시작단계라는 것이 관련학자들의 주장이다. 아직 두드러지게 연구자가 늘고 논문이 많이 발표되는 것은 아니지만 소수라도 하나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이다. 조선불교에 대한 연구는 역사의 시대적 생명력을 잃었을 것이라는 선입견 극복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상길 연구원(동국대 박물관)은 "조선시대가 역사의 시대임을 강조하느라 진정 불교의 어떤 모습이 살아 남아있는가에 대해 무관심해 왔다"며 "조선시대에는 불교의식집이 많이 발간되는데 이는 민중과 좀더 가까워지고 대중화했다는 근

거가 될 수 있다. 또 사찰에 남아 있는 문서 비문 현판 등 발굴이 용이할 수 있는 시야확대가 필요하다.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는 조선시대 불교의 의례 의식 등을 통해 조선불교의 속살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시각을 키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태까지 조선불교는 정치사적인 측면으로 접근되어 왔는데 이는 조선왕조실록 스님문집 등 국한된 자료로만 연구해온 결과물이다. 이를 탈피해 조선시대 고승들의 문집에 드러난 사상과 그들이 저술한 경전 주석서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분야도 사상 사회 경제 교단 등으로 확대시켜 천인으로서 남겨졌던 스님이 호패를 가졌던 점, 사원과 승려계층이 부담해야 했던 역과 경제적 부담에 관한 연구, 조선왕조의 억불정책에 대한 불교계의 저항 움직임에 대한 연구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

또 불교 자체 연구에만 치우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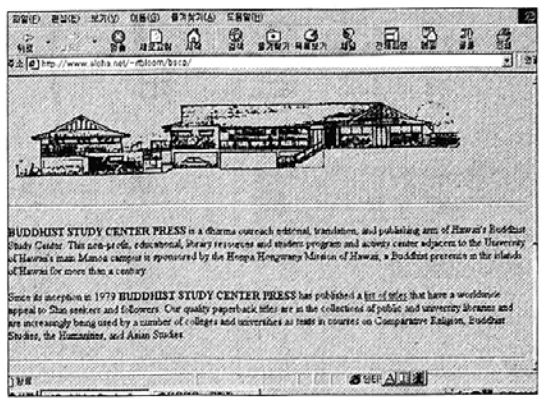
학위취득자	논문제목	수여대학	년도
이재창	고려 사원경제의 연구	동국대	75
한기두	한국선사상 연구	원광대	75
홍윤식	한국불교의례의 연구	경도불교대	78
김갑주	조선시대 사원경제 연구	동국대	82
김심룡	한국미술신앙의 연구	공파대(波大)	84
진성주	고려 후기 진각국사해심 연구	중앙대	86
서윤길	고려시대의 밀교연구	동국대	87
권기중	고려후기의 선사상 연구	동국대	87
채상식	고려후기의 불교사 연구	서울대	87
신종원	신라 초기 불교사 연구	고려대	88
고익진	한국고대 불교사상 연구	동국대	88
장학욱	신라 정토교의 연구	동국대	88
한태식	신라 정토사상의 연구	경도불교대	89
김복순	신라 해대 화엄종 연구	고려대	89
김윤조	조선전기 국행기양 불사 연구	동국대	90
김상현	신라 화엄사상 연구	동국대	90
이봉춘	조선 초기 배불사 연구	동국대	91
허홍식	고려 불교사 연구	동국대	91
김광식	고려 최씨무인정권의 불교계 운용에 관한 연구	건국대	92
김형우	고려시대 국가적 불교행사에 대한 연구	동국대	93
변상희	고려 현종대 불교계의 현황과 그 성격	숙명여대	93
박해달	기회의 불교사상 연구	서울대	96
김경집	한국불교 개회기 교단사 연구	동국대	97
이정주	여말선초 유학자의 불교관	고려대	98
최인표	나말여초 선종불교정책 연구	효성기독교대	98

것이 아니라 조선의 전반적인 사회 경제적 상황과 관련지어 진행되어야 한다.

김희성 교수(서강대)는 '한국불교사 연구의 어제와 오늘'이라는 논문에서 "조선조 불교사나 근현대 불교사 연구가 그 중요성에 비해 연구가 빈약한 형편"이라며 "고승

저술을 비롯해 금석문(金石文) 사지(寺誌) 각종 사서(史書)와 문집 등 한국불교 관계 문헌들의 정확한 번역작업이 선행되어야 조선불교 연구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Buddhist Study Center Press is a diploma overseas editorial, translation, and publishing arm of Hawaii's Buddhist Study Center. The press is educational, library resource and student program and activity center adjacent to the University of Hawaii's main campus in Honolulu. It is sponsored by the Honorable Huiyuan Monastery, a Buddhist presence in the islands of Hawaii for more than a century.

Since its inception in 1979, BUDDHIST STUDY CENTER PRESS has published a list of titles that have a worldwide appeal to the readers and scholars. Our quality paperback titles are in the collection of public and university libraries and are increasingly being used by a number of colleges and universities as text in courses on Comparative Religions, Buddhist Studies, the Himalayas, and Asian Studies.

##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美 불학연구 '일본불교'

### 日 불교계 재정후원 사이트 개설 일본내 인도철학연구 결과 홍보

미국과 유럽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불교는 단연 티베트, 일본, 스리랑카의 불교다. 티베트 불교는 달라이 라마의 달마 투어(Dharma Tour)로, 스리랑카 불교는 외국인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준 위빠사나 수행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일본불교의 경우 조금 다르다.

하와이대 마노아캠퍼스의 불학연구소에서 개설한 사이트에는 일본불교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에 대한 정보가 잘 소개되어 있다. 미국에서 동양학의 메카로 꼽히는 하와이대 불학연구소의 사이트에 일본불교를 소개하는 메뉴를 개설해 놓은 것은 일본불교계의 재정적 후원 때문이다. 특히 이 사이트에서는 일본에서의 '인도철학 연구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의 인도철학 연구는 1879년 12월 히라 타잔스님(1819~1892)이 동경대에서 '불서강의'를 개설한 것에서 시작됐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인도철학의 시작은 20년 뒤의 일이다. 영국의 옥스포드대학에서 8년간 산스크리트어를 공부하고 1884년 귀국했던 난조 분유스님(경도 본원사)이 동경대에서 산스크리트어 강좌를 개설한 때부터다.

일본에는 일찌기 헤이안시대에 중국의 당에서부터 시달학(Siddham)이 수입된 적이 있었으나, 난조 분유스님은 일본에서 서양적 의미의 텍스트 교정을 기반으로 하는 산스크리트학을 일본에 도입한 최초의 인물, 즉 산스크리트학 불교학의 창설자인 셈이다.

현재 일본의 인도철학 연구

경향은 불교논리와 문법학이 함께 만나는 점점, 즉 '언어의 문제'를 둘러싼 인식론과 논리학 분야의 관심이 심화되고 있다.

이것은 인도철학을 단순히 문헌학적으로만 파악하려는 태도에 대한 반성으로 볼 수 있으며, 1989년 '일본남아시아학회'가 조직된 것도 당연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 학회는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남아시아연구>는 학술지도 발간하는데, 이같은 경향은 인도철학을 보다 실제적이며 포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의 인도철학의 역사는 1885년 동경대에 산스크리트어강좌가 개강된 이래 백여년이나 되는 짧은 세월을 지나는 동안에 눈부신 발전을 해왔으며, 학자층과 세 계적인 수준에 올라서 있다. 현재 일본에서 인도철학관련 논문을 발표하는 연구기관과 그 학술잡지는 매겨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이외에도 이 사이트에서는 에이키치 이케야마의 <부처와 중생>, 알프레드 블룸의 <신 불교의 정신>, 타카마로 시가키의 <깨달음이 있는 정토세계> 등 일본불교를 개괄해 놓은 연구서 20여종을 소개한다.

이 가운데 일본불자들의 필독서로 꼽히고 있는 책은 바로 <부처와 중생>. 저자 에이키치 이케야마는 이 책에서 일본불교의 특징을 니테와 괴테의 철학과 문학으로 설명해 놓고 있다.

오중욱 기자 (gobacou@buddhapia.com)

△http://www.aloha.net/~rtbloom/bscp/index.html

## "권상로박사의 전통불교학 비판 투철한 현실인식과 신심 바탕"

### 이재현박사 '권상로의 불교개혁사상' 발표

"권상로는 전통 강연 교육과 근대적 불교교육을 겸비하여 전통교학과 근대불교학의 접점에 위치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입성해금 이후 지나간 역력에서 벗어나 불교 증흥의 분위기가 무르익던 1900년대 초에 20대 청년 교학승으로서 활동을 시작한 그였기에 불교계의 구습(舊習)에 대한 비판 의식이 날카롭고 또한 30대 초인 1910년에 불교계 중앙 종단의 소임을 맡아보게 되면서부터는 불교 근대화를 위한 제도적 개혁 또는 전통 교학의 근대적 변용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질 수 있었다고 보여진다."

보조사상연구원이 개최한 제 21차 월례발표회에서 '권상로의 불교개혁사상'을 발표한 이재현 박사(정신문화연구원)는 전통강원 교육을 통해 성장했던 권상로가 전통 불교학을 비판할 수 있었다는 점을 주목하는데 이는

그의 투철한 현실 인식과 신심(信心)의 바탕 위에서 가능했던 일로 보고 있다.

이 박사는 권상로가 불교의 개혁을 주장할 수 있었던 데에는 무엇보다도 경동주의적 바탕 위에 철저하게 현실적이고 원동적인 불교 사상이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즉 묵수(墨守)보다는 활용(活用)을 중시했기에 전통을 과감히 비판하고 서양의 근대 정신을 받아들여 그것을 불교적으로 해석하고 발전시키는 데에 심혈을 기울였다는 것이다. 이것은 불교의 진리에 대한 확신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오늘날 개혁이 절실하게 필요한 불교의 입장에서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본 이 박사는 다만 이러한 원동성과 현실성은 자칫 지계(持戒) 관념(觀念)의 약화와 현실 타협의 구실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몸에 대한 집착심 버리자"

### '전통과 현대' 여름호 안목선서 '불교의 몸' 발표

최근 발간된 계간 <전통과 현대> 여름호는 '몸의 문화철학적 조명'을 특집으로 다루고 있다.

이 가운데 안목선 강사(조선대)는 '불교의 몸: 속박과 해탈의 장소로서의 몸'에서 "불교에서는 몸을 긍정적인 해탈의 장소로서 보는 관점과 부정적인 속박의 장소로서 보는 두가지 관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볼 때 현대인의 몸 기구를 통한 몸의 상품화 과정은 몸에 대한 개체적이고 배타적인 소유의식과 몸에 대한 집착심을 불러일으키고 강화한다는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불교의 도덕적인 몸의 이상-해탈의 몸-은 몸의 개

## 일연스님의 '중편조동오위' 연재

### '불교와 문화' 여름호

국내 최초로 완역된 일연스님의 <중편조동오위(重編調洞五位)>가 실린 계간 <불교와 문화> 여름호가 출간됐다.

<삼유사>의 저자로만 알려져 있는 일연스님의 또 다른 저서인 <중편조동오위>는 책명만 전해져 오다가 민영규 선생이 일본 경도대학 소장의 1680년 간본이 일연스님 저술임을 밝혀냄으로써 세상에 알려

졌다. 이 책은 중국 선종의 일파인 조동종의 오위설에 대해서 일연이 주를 보완하여 엮은 것이다. <중편조동오위>는 3회에 걸쳐 연재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특집으로는 '21세기 해양의 시대와 동아시아불교'를 주제로 '21세기 해양의 시대와 동아시아 불교의 미래'-윤명철 교수(동국대), 한·중·일 해상교류와 관음 신앙-조영록 교수(동국대), 불전 및 기록으로 보는 불교와 해양-송

위지 교수(외대) 등을 수록했다.

### 백련학당 무료공개강좌

성철선사상연구원(원장 목정배)은 99 백련학당 여름 무료 공개 강좌를 실시한다.

16일부터 8월20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30분에는 백일법문 여섯주제 △성철스님의 백일법문 탄생 △불교의 본질과 실상 △깨달음과 진리 △그 영원한 물음·화두 △참다운 법, 참다운 도-중도 △백일법문의 현재적 의미 등을 목정배 교수(동국대)가 강의한다. (02) 744-1544

한형조 교수의 주머니 속 대장경 303·선(禪) 아시아인은 '들은 바, 전 지의 아귀남도 없이 전해졌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 한글 세대를 위한 선(禪)불교 강의

# 오늘의 언어로 열어 보이는 本地風光

## 언어의 끝자락에서 만나는 선(禪)의 세계

- 최근 출판가엔 가히 한국판 선의 황금시대라 할 만큼 관련 서적이 다부어 출판됐지만, 이처럼 원문의 맛을 살리는 것에 더해 탁월한 문학적 향취까지 풍기는 책은 흔치 않다. (문화일보 김중택 기자)
- 불립문자(不立文字)의 선을 언어를 통해 그 본질을 소개했다. 이제까지의 모든 것을 버리고 사람과 사회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고, 나 자신까지 해체해 '있는 그대로' 보라고 말하고 있다. (동아일보 이광표 기자)
- 선(禪)의 역사와 이념, 방법과 한계뿐 아니라 궁극적인 몸음, '너는 누구냐'는데 답하기 위한 준비에 충실히 감당할 책이다. (한국일보 장병욱 기자)
- 선불교의 진면목을 간단명료하게 보여 주는 최두집인 '무문관(無門關)'을 번역 해제한 이 책은, 동양적 혹은 불교적 세계관에서의 자아찾기 과정을 제시한다. (세계일보 이준수 기자)
- 이 책은 언어라는 도구를 사용해 현대인들을 선의 세계로 초대한다. .... 달마라는 페르시아 승려에게서 출발한 선(禪)이 6조 혜능에 이르러 기반과 동력을 얻기까지의 역사와 이념, 방법과 한계를 읽고 있다. (시사저널 성우재 기자)

한형조 지음/ E6 변형 33쪽 / 값 6000원

# 무문관 혹은 "너는 누구냐"